

지붕론

왼쪽도 오른쪽도,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너는
어디 한 곳 치켜세우지 않는다

주머니라는 게 너는 없어서

간밤의 과식으로
옥상들이 종일 배수구를 게워낼 때조차,
힘 한번 들이지 않고 장마를 벗어놓는다

무엇 하나 움켜쥔 적 없는
너의 손아귀엔

얼룩조차 머물 시간이 없다

그 부지런한 비움의 자세가
처마 끝,
동그랗게 부풀어오르는
빛의 결정을 완성시키는 거겠지

머리 위에 지붕을 얹듯 하나 둘
거리 위의 행인들이
우산을 펼쳐 드는 시간

읽다 만 책을 뒤집어두고 떠난 모양으로
곳곳에 너는 널브러져 있다

사람들에게 너는

더는 읽히지 않는 서적, 아무도
들춰보지 않아
먼지만 쌓여 가는 문장

검은 우산을 들고
불투명한 외투를 여미며

지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맹인처럼 걷는 밤
눈먼 도시의 달빛만이 점자처럼 너를 읽어내려 간다